

# ESG채권 발행 동향

(2024.4.25. 금융연구1실 송병도)

## 1 글로벌 ESG채권 발행현황

□ (발행동향) 글로벌 ESG채권 발행은 '19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'23년 기준 9,400억달러(1,200조원가량) 규모로 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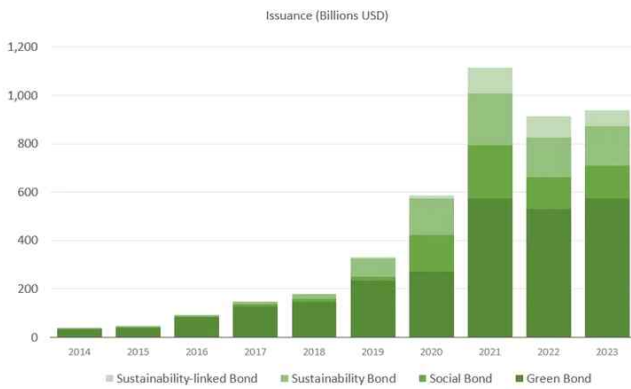
< '23년 글로벌 ESG채권 발행규모 >

구분	녹색채권	사회적채권	지속가능채권	지속가능연계채권	합계
발행액(억달러)	5,750	1,350	1,610	680	9,400
비중	61.2%	14.4%	17.1%	7.2%	100%

출처 : 블룸버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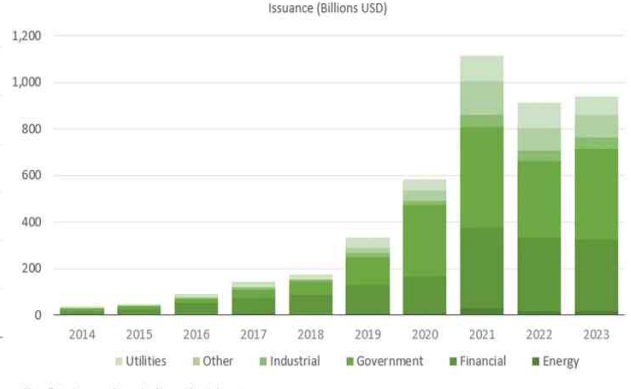
- 녹색채권이 61.2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도입된 지속가능연계채권(SLB) 발행도 증가하는 경향 보임
- 대체로 민간부문 중 금융산업과 정부부문(산하 공공기관 포함)이 ESG채권발행의 대부분을 차지

< 연도별 / 유형별 발행액 추이 >



Note: Data shows yearly supply of impact bonds  
Source: Bloomberg

< 연도별 / 산업별 발행액 추이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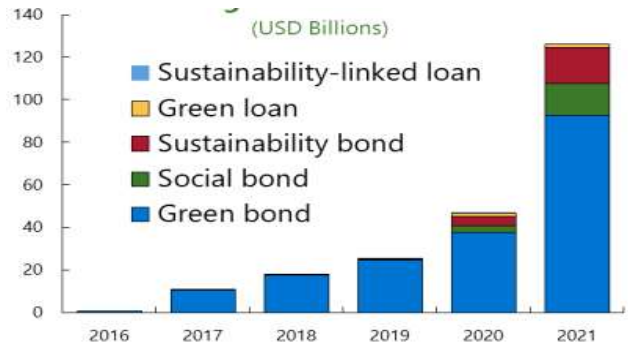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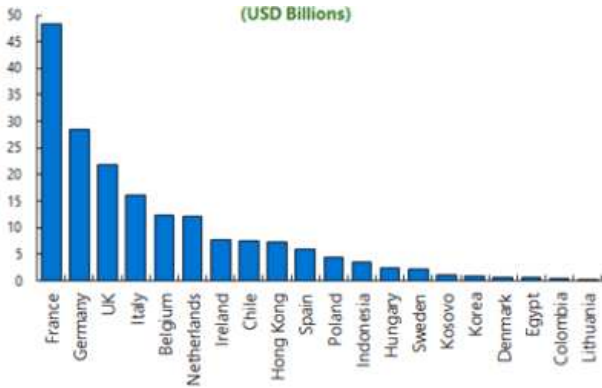
Note: Data shows yearly supply of impact bonds by sector  
Source: Bloomberg

출처 : 블룸버그

- (정부·지자체) 해외 중앙정부(국채)·지방정부(지방채)는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ESG채권을 활발히 발행하고 있으며, 최근 일부 국가에서 SLB도 발행
- (녹색/사회적/지속가능 채권) 프랑스, 독일, 영국, 이탈리아, 벨기에,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 위주로 ESG 국채·지방채 발행

※ '21년 기준 전체 ESG채권 발행액 중 정부(중앙·지방) 발행액이 8% 가량 차지(출처: IMF)

< '21년 녹색채권 발행 상위 20개국 정부 >      < '21년 정부발행 ESG채권 유형 분포 >



출처 : IMF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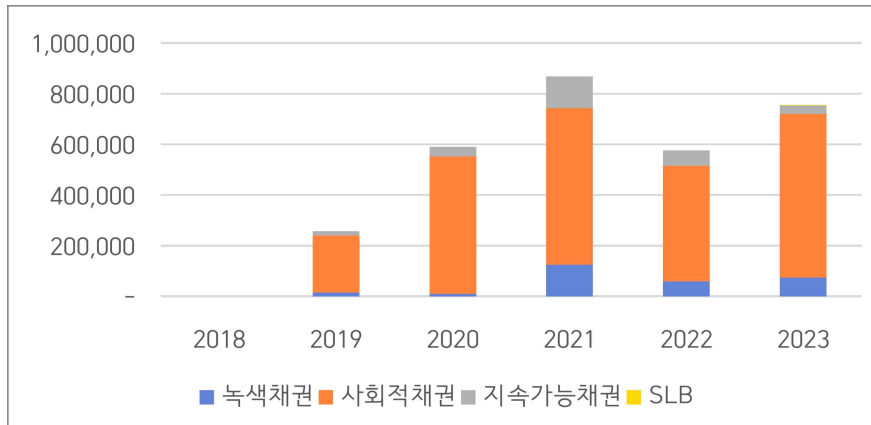
- (지속가능연계채권) '24.3월말 기준 칠레·우루과이 중앙정부에서 SLB국채 발행, 스웨덴 (헬싱버그)·일본(시가현) 지방정부에서 SLB지방채 발행한 것이 전부로 아직까지 정부 (지자체 포함) 차원의 발행사례는 많지 않음
- (동향) 세계 각국 정부는 지속가능성장에의 의지를 대외에 표방하는 한편 외부의 자금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ESG자금조달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, 늘려가고 있는 추세

## 2 국내 ESG채권 발행현황

- (발행동향) 우리나라의 경우도 '19년부터 ESG채권 발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였으며 '23년 기준 75.5조원 수준으로 발행
  - '24.3.6. 발행잔액 기준 채권종류별로는 사회적채권이 81.8%, 발행주체별로는 공기업이 78.1%로 각각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여, 녹색채권 중심인 해외와는 다소 상이한 모습
    - 사회적채권 발행물량 90.2%가 공기업에 의해 발행된 물량(주금공,신보,기은,캠코 등)
- (지속가능연계채권) SLB의 경우 '23.1월 SK하이닉스가 10억달러(1조2천억원, 외화표시), '23.7월 현대캐피탈에서 2,200억원(원화표시) 발행한 것이 전부
- (정부·지자체) 국내의 경우 현재까지 정부(중앙·지방)의 원화표시 ESG채권 발행 사례 없음\*
  - \* 단 중앙정부는 '19년 지속가능채권(국채) 5억달러, '21년 녹색채권(국채) 8억달러를 외화표시로 발행한 사례는 있음

< 연도별 국내 ESG채권 발행(상장)액 >

년도	'18	'19	'20	'21	'22	'23
발행액(억원)	33	256,893	588,862	867,530	574,824	755,325



출처 : KRX

< 채권종류별 발행(상장)잔액 (억원) >

종류	발행기관수	종목수	상장잔액(억원)	비중(상장잔액)
녹색채권	91	276	260,362	10.5%
사회적채권	117	1,502	2,023,136	81.8%
지속가능채권	61	273	188,180	7.6%
지속가능연계채권	1	5	2,200	0.1%
합계	229(중복제외)	2,056	2,473,878	100%

'24.3.6기준, 출처 KRX

< 업종별 발행(상장)잔액 (억원) >

유형	녹색채권	사회적채권	지속가능채권	지속가능연계채권	합계	비중
<b>공공부문(소계)</b>	<b>87,052</b>	<b>1,825,716</b>	<b>18,100</b>	-	<b>1,930,868</b>	<b>78.1%</b>
↳ 금융업	15,113	1,575,666	500	-	1,591,279	64.3%
↳ 발전·인프라	54,839	20,950	16,100	-	91,889	3.7%
↳ 기타	17,100	229,100	1,500	-	247,700	10.0%
<b>민간부문(소계)</b>	<b>173,310</b>	<b>197,420</b>	<b>170,080</b>	<b>2,200</b>	<b>543,010</b>	<b>21.9%</b>
↳ 금융업	40,100	188,920	143,790	2,200	-	15.2%
↳ 제조업	75,440	5,200	14,400	-	-	3.8%
↳ 에너지	24,350	-	2,000	-	-	1.1%
↳ 유통업	1,200	3,200	3,400	-	-	0.3%
↳ 기타	32,220	100	3,490	-	-	1.6%
합계	260,362	2,023,136	188,180	2,200	2,473,878	100%
비중	10.5%	81.8%	7.6%	0.1%	100%	

'24.3.6기준, 출처 KRX

1. ESG채권 발행잔액 상위 10개사 현황

(‘24.3.6기준, 단위 : 억원)

발행기관	유형	녹색채권	사회적채권	지속가능채권	SLB	합계	비율*
주택금융공사	공공	-	1,357,035	-	-	1,357,035	54.85%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	공공	1,000	155,700	-	-	156,700	6.33%
신보유동화SPC	공공	1,513	132,709	-	-	134,222	5.43%
기업은행	공공	600	117,700	10,500	-	128,800	5.21%
한국장학재단	공공	-	53,300	-	-	53,300	2.15%
자산관리공사	공공	2,000	41,850	-	-	43,850	1.77%
예금보험공사	공공	-	33,300	-	-	33,300	1.35%
토지주택공사	공공	11,600	20,100	-	-	31,700	1.28%
LG에너지솔루션	민간	26,000	-	-	-	26,000	1.05%
우리카드	민간	-	25,800	-	-	25,800	1.04%
소계		42,713	1,937,494	10,500	0	1,990,707	80.46%

\* 전체 발행액 대비 비율

2. 부산지역 발행사 ESG채권 발행잔액 현황

(‘24.3.6기준, 단위 : 억원)

발행기관	유형	녹색채권	사회적채권	지속가능채권	SLB	합계	비율*
주택금융공사	공공	-	1,357,035	-	-	1,357,035	54.85%
자산관리공사	공공	2,000	41,850	-	-	43,850	1.77%
한국남부발전	공공	8,700	-	-	-	8,700	0.35%
부산항만공사	공공	-	3,700	-	-	3,700	0.15%
기보유동화SPC	공공	-	3,627	-	-	3,627	0.15%
부산은행	민간	600	1,500	-	-	2,100	0.08%
해양진흥공사	공공	-	-	1,500	-	1,500	0.06%
부산도시공사	공공	-	-	1,200	-	1,200	0.05%
부산교통공사	공공	1,039	-	-	-	1,039	0.04%
비엔케이캐피탈	민간	300	400	-	-	700	0.03%
소계		12,639	1,408,112	2,700	0	1,423,451	57.53%

\* 전체 발행액 대비 비율